

두 번째는,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013년부터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대 핵심가치에 따른
 정책 목표를 이뤄 세계인과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5대 핵심가치 및 정책목표

-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 발전



共 ZONE

세계인과 함께 만드는 해피타임
 Korea Immigration Service Quarterly Magazine





일본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설날그믐을 뜻하는 '오오미소카(大晦日)'.

한국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이하듯

일본인들은 사찰에 찾아가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이날 일본에서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토시코시소바'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소바의 면이 가늘고 길어서 쉽게 끊어지는 것처럼

길게 살며 병과의 인연은 끊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국에서 무병장수를 기원할 때 국수를 먹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한국과 일본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모습이 서로 닮았듯

희망찬 새해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일 듯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3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으로 내일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 시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무척 크다고 합니다. 우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지난 5년 동안 추진해 온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2013년부터 추진할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재한외국인 145만 명을 넘어서는 다문화 국가로 급변화한 한국은 그동안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 적응 지원 등 새로운 정책분야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인권보호와 다문화 지원,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공 등의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게 될 외국인정책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사회갈등 요인이 아닌 미래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어울려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차별방지과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가칭) 제정,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가칭) 마련,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ODA) 등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 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에 이르기까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대 핵심가치에 따른 정책 목표를 14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통해 전 부처가 협력해 이뤄갈 것입니다.

일본의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는 말처럼, 우리나라에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라는 희망을 내포한 말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꿈을 갖고 한국에 정착해 열심히 살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 2013년에는 지금보다 나은 정책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찾아뵙겠습니다.

A Brighter Future with a Balanced Immigration Policy

For the Republic of Korea, 2012 was a year of many changes. With the newly elected president, the people hold great expectations for the nation's new era. W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successfully fulfilled the First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for the past five years and established the Second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to take effect in 2013.

In a span of a few years, Korea has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nation with more than 1.45million foreigners. Actively engaging in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new immigrants and attracting foreign talents, Korea continues its efforts for improved immigration policy that promotes human rights, multiculturalism, and quality civil service.

The immigration policy taking effect in 2013 reflects various demands of the people as a balanced policy that emphasizes order, safety, and the responsibility and contribution of immigrants. The increase of foreigners in Korea is not a potential source of conflict but a driving force behind Korea's growth and an increasingly global Korea. The vision for an energetic Korea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openness and harmony among all members of the society.

The five core values of the Second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are openness, integration, human rights, safety, and cooperation. Embodying these values are 146 specific policy goal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anti-discrimination law, creation of a social integration fund for immigrants, and an employment liaison service for high-quality talents from developing nations.

The Korean proverb "The sun shall rise again tomorrow" reflects our nation's hope for a brighter future. Dear foreigners in Korea, I sincerely hope the new year will bring you one step closer to achieving your dreams in this beloved countr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looks forward to serving you with improved service of quality and expediency. ☺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Chang Se LEE

共 ZONE

2012 WINTER NO.28
 세계인과 함께 만드는 해피타임



34



12



16



22



32



38

CONTENTS

- 02 공존의窓
- 03 Editor's Message 균형있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외국인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다
- 08 Theme Guide 재한외국인의 한국 정착 돕는 정책
- 12 Theme Site 안산다문화마을특구를 가다
- 14 Theme Review 응답하라~재한외국인의 '한국살이'
- 16 체험, Korea! 과거와 미래, 오늘이 함께하는 인천
- 20 Happy Together 짬보 강치맥 씨 가족의 행복일기
- 22 희망교실 스케치 제2회 정부합동 고충상담 한마음걷기축제
- 26 공존 초대석 국내 최초 서양인 한의사 라이문트 로이어
- 30 출입국 Q & A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 외국국적동포 자녀 초청

IMMIGRATION NOW

- 32 우리팀 포커스 꿈을 응원하는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 34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한대만대표부
- 37 출입국 NUMBERS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3,648명
- 38 WOW 출입국 탐방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44 해외 단신 세계이민동향 No. 82
- 48 출입국 News 4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50 Blue Post 독자에게 온 편지
- 51 문화로 배우는 한국 눈발을 달리는 신발 '설피'

38



COVER STORY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
 스티븐 맥케니·엘레나·샤흐노자 씨는 서울글로벌 빌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이다. 스티븐 맥케니 씨는 센터장으로, 엘레나 씨와 샤흐노자 씨는 상담원으로 일하며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여러 도움을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한 만큼 한국과 한국인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입을 모으는 그들. 앞으로도 내국인과 공존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좌측부터_ 샤흐노자(우즈베키스탄/유학생), 스티븐 맥케니(미국/사업가), 엘레나(필리핀/결혼이민여성)

외국인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다

HAPPY DREAM PROJECT



- 01 THEME GUIDE 재한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돕는 정책
- 02 THEME SITE 안산다문화마을특구
- 03 THEME REVIEW 재한외국인의 '한국살이'



● 2000년대 초부터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3만 8천 명(2012년 10월 말)으로 어느덧 대한민국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 체류 자격도 결혼이민자, 근로자, 투자자, 유학생 등으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종합상담 서비스 콜센터 '1345',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 서비스 '하이코리아'와 '휴넷코리아'를 운영하여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결혼이민여성을 위해서는 새내기 결혼이민자에게 체류·국적, 기초생활 지식 등 국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민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민자 간 유대강화 및 자조모임 활성화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기본소양 함양과 국내 정착지원을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한외국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프로그램 이수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프로그램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 이밖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우수인력, 재외동포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우수인력의 체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외국인의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재외동포를 취업 전 숙련공으로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국 귀국 시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류 편의를 마련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출입국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외국인이 서로 공존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THEME GUIDE : 재한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돕는 정책 가이드

단기 여행비자, 단기 교류 유학생 등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이방인 외에도 국내에는 결혼이민자, 근로자, 투자자, 동포 등 장기간 체류하는 재한외국인이 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의 생활편의와 적응을 돕고자 다양한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화와 인터넷으로 단번에 민원이 해결되는 콜센터, 각종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재외동포의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해 알아본다.

There has been an increase of foreigners coming to Korea for a long-term stay such as marriage immigrants, migrant workers, investors and overseas Koreans, in addition to foreigners staying for a short period of time including those with short-term travel visa and short-term exchange students.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is implementing a wide range of systems, policies and programs to help foreigners adapt to the life in Korea. Here, we'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call center for civil issues, various social adjustment programs, support for overseas Koreans seeking jobs, and more.

꼼꼼한 서비스 편리하고 빠릅니다~

Quick, Convenient and Thorough Services



민원은 전화와 인터넷으로 단번에 해결

'1345'는 재한외국인에게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정보 등의 종합상담 서비스를 18개 언어로 제공하는 콜센터다. '1345' 전화상담은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관계없이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연결되며, 해외 이용 시 '+82-1345'(지역번호 없음)를 이용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345'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 서비스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출입국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우리나라에 체류 또는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투자, 고용, 거주, 생활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 창구인 하이코리아를 이용하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민원서비스를 사무소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3월부터는 외국인유학생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유학생(D-2) 및 여학연수생(D-4-1) 자격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대하여 '하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및 거소이전 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휴넷코리아에서는 해외 인재의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한국 취업을 원하는 전문 외국인력이 보다 쉽게 채용과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온라인 사증(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Resolve civil issues via phone or the Internet

'1345' is a call center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KIS and consultation services regarding civil issues to help foreigners adjust to the life in Korea. This service is available in 18

languages, and those who wish to use the service should dial '1345' without an area code and '+82-1345 (without an area code)' if they are outside the country.

KIS also operates Hi Korea (www.hikorea.go.kr) and HuNet Korea(www.visa.go.kr), electronic civil application services for foreigners in addition to the '1345' call center. Hi Korea is a one-stop e-service for foreigners, wishing to visit or live in Korea, as it allows online submission of applications related to immigration and provides information on investment, employment, settlement and the life in Korea for foreigners. This means that foreigners do not have to visit the KIS office in person to submit their application forms.

HuNet Korea provides online visa application services to facilitate the recruitment and employment of foreign professionals who wish to work in Korea and domestic companies that want to hire foreigners.



결혼이민자의 빠른 정착을 도와드려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새내기 결혼이민자에게 체류·국적, 기초생활 지식 등 국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6개 출장소에서 시행 중이다. 참여자에 대한 혜택으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최초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편익을 높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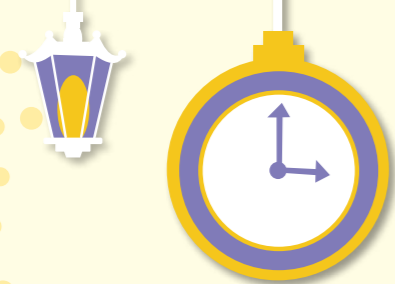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부담완화 등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친정부모와 가족까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결혼이민자 친정부모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체류가 가능하며, 결혼이민자 가족은 친족(4촌 이내 혈족, 인척)으로 부모가 사망,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하고, 출산·양육 지원 목적인 경우 여성 가족 1명에 대하여 장기체류를 허용해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자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민자 간 유대 강화 및 자조 모임 활성화를 돕고 있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 교양 아카데미 개설, 문화교류, 어울림 행사 등을 갖고, 국가별로 결혼이민자 대표 총 513명을 지정하고 국내정착에 성공한 국적취득 결혼이민자 141명을 명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결혼이민자의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We help marriage immigrants make fast settlement

KIS is operating the Happy Start Program, through which information on living in Korea such as sojourn, citizenship and basic information is provided to new marriage immigrants, at 14 KIS offices and 16 branch offices. Benefits are given to the participants of this program; for instance, those who complete this program are granted a sojourn period of at least 2 years. Also,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system to support stable settlement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by lessening the burden of childcare and allowing their parents and families to stay in Korea for a long term.

KIS is helping to strengthen the bond and solidarity among



marriage immigrants by establishing an immigrant network. It has established settlement support programs, refinement academies,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KIS designated a total of 513 marriage immigrants to represent their homelands, and appointed 141 marriage immigrants who acquired Korean citizenship as the honorary KIS officials to act as mentors for new marriage immigrants.

프로그램 지원과 제도개선으로 살기 편한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자의 기본소양 함양과 국내 정착지원을 위하여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참여자들과 강사 등 운영기관 종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운영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민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기관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2010년 77개이던 운영기관을 2011년에는 150개로, 2012년에는 271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농어촌, 산간, 벽지, 섬 등 원거리 거주자들과 임신·출산, 장애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참여가 곤란한 이민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화상교육'도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이민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귀화심사 대기시간 단축, 일반 영주자격(F-5-1) 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비전문취업자(E-9)에 대한 특정활동(E-7) 변경 시 한국어능력 점수 제출 면제,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F-2)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의 체류 편의를 위해 기업투자자(D-8)와 그 가족(F-3)에 대한 체류허가 절차를 줄였다.

2011년 7월 1일부터 기업투자자(D-8)의 체류기간 연장 및 그 동반가족 중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른 체류자격에서 동반(F-3) 자격으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ONE-STOP으로 당일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KK) 요청 등에 따라 2011년 11월 14일에는 외국인 투자자 및 전문 인력의 가사보조인 고용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투자자 및 전문 인력이 입국 전부터 1년 이상 고용한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신청서 없이 재외공관에서 바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외국인의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outh Korea, a great place to live with excellent programs and systems

KIS introduce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2009 to cultivate the basic skills of marriage immigrants and support their settlement in Korea. Since then, the number of operating agencies has been increased from 77 (2010) to 150 (2011) and to 271 (2012). In order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in this program, those who complete the program are given various benefits: exemption from the written exam and interview screening for naturalization, shortening of waiting time for naturalization screening, exemption from TOPIK score submission when changing to the general permanent resident status (F-5-1), exemption from TOPIK score submission when changing to the "special activities (E-7)" for non-professional workers (E-9), and bonus points when changing the resident status of professional worker (F-2).

KIS has reduced the procedures taken to allow the sojourn of corporate investors (D-8) and their families (F-3) in order to provide convenience to foreigner investors. Since July 1, 2011, one-stop, one-day service has been provided by KIS offices nationwide for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for corporate investors (D-8) and their spouses and minor children, and changing the visa status to the family dependent status (F-3).

재외동포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우리나라 거주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139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재외동포가 약 39%인 55만 명, 국내 체류외국인 중 외국국적 동포의 비중이 1/3을 넘어섰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2007년부터 방문취업(H-2)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 불황과 2010년 동포의 방문취업 체류인원이 30만 3천 명 내로 제한되면서 방문취업제로 입국하고자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후 대기하고 있는 무연고 외국국적 동포들이 증가하여 동포사회에서 불만이 증폭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취업 전 숙련공으로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국 귀국 시 선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기술교육을 수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하여 방문취업 허용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편의를 마련했다.

2011년 8월부터 재외동포기술교육 기간을 9개월 주말교육에서 6개월 주말교육으로 개선하였고, 2012년부터는 동포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중 취업활동을 허가하지 않고 6주 주중교육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방문취업·기술교육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11년 8월부터는 인력부족율이 심각한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분야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동 분야에서 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허용함으로써 2011년 말 기준 약 75,777여 명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Reinforced support for settlement of overseas Koreans

KIS has been offering the working visit (H-2) visa since 2009 to allow stable settlement of overseas Koreans, the population of which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Also, the government provides them with the opportunities to receive technical training in Korea to prepare them as skilled workers, and grant them the working visit (H-2) visa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echnical training to be able to find a job in Korea in a field that hires such visa-holders.

Since August 2011, the education and training period for overseas Koreans has been reduced from 9 months [6 months for weekend training] to 6 weeks, and job activities during the 6-week period are now prohibited to ensure trainee concentration. Also, TOPIK scores are no longer required for Korean-Chinese, and any Korean-Chinese who wish to obtain working visit visa or receive technical training to work in Korea can submit their application forms online. ☎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현황

Participation in the Happy Start Program

단위 (Unit) :명 (Persons)

구분 Category	총계 Total	2009	2010	2011	2012
남자 Male	713	86	235	197	195
여자 Female	13,024	1,349	3,127	4,523	4,025
총계 Total	13,737	1,435	3,362	4,720	4,220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Operating Agencies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단위 (Unit) :개소 (Sites)

구분 Category	2009	2010	2011	2012
거점운영기관 Operating Bases	20	30	31	47
일반운영기관 General Operating Agencies	0	47	119	224
총계 Total	20	77	150	271

외국인종합안내센터(ICC)

종합적인 외국인종합안내서비스를 수행하는 외국인 관련 대표 행정 생활 안내

Immigration Contact Center(ICC)

Comprehensive information services providing administration and living information services for foreigners

전화상담 • 출입국업무 정보 및 민원상담 (다국어 서비스) • 공공기관 3자 통역	Call Center • Immigration service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on civil matters (multiple languages available) • Interpreter available when dealing with public agencies
하이코리아·휴넷코리아 • 포털 콘텐츠 관리 • 전자민원 관련 업무 •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 유학생 정보시스템 운영 • 사증(사증발급신청서) 온라인 신청	Hi Korea & HuNet Korea • Management of portal contents • Electronic civil services • Appointment with the KIS office • Information system for foreign students • Online visa application
중소기업 애로상담 • 중소기업의 출입국업무 관련 민원상담 센터 운영	Counseling for Small & Medium Businesses • Consultation center for civil matters related to immigration

THEME SITE

: 안산다문화마을특구

한국 속 작은 아시아, '안산다문화거리 프리덤~'



작은 지구촌, 국경 없는 마을, 다문화거리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계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세계 66개국에서 온 5만여 명의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 가며 각양각색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올해 1월 다문화홍보학습관을 개관하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안산다문화거리를 찾았다.



고국의 향수를 달래주는 제2의 고향

국적을 알 수 없는 먹음직스런 음식들과 한겨울에도 두리안, 망고 등 열대과일이 좌판 가득 쌓여 있는 안산다문화마을특구. '다문화거리'로 더 유명한 이곳은 외국음식점과 다양한 언어로 표기된 간판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마치 외국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다문화거리에 들어서 있는 14개국 164개의 외국 음식점은 현지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며 외국인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색적인 맛을 즐기자 하는 내국인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주말이면 5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문화거리를 찾고 있다고. "다문화거리는 IMF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인해 외국 인력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은 반월·시화 산업공단이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인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



죠. 그러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과 물건을 파는 상점이 들어섰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거리에서 친구들과 고향의 음식을 먹고, 무료진료 서비스를 받으며, 다문화도서관에서 자국어로 된 책을 빌려본다. 또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불이익에 대해 안산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주말이면 다문화거리에서 고국 음식이나 물건을 구입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마디로 재한외국인에게 안산다문화거리는 편안히 쉬고,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안산다문화 거리는 최근 들어 내국인도 다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올해 1월 개관한 다문화홍보학습관을 비롯해 주말마다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져 내·외국인 누구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음식, 즐기러 오세요~"

안산 원곡동에 위치한 다문화마을특구는 다양한 세계 음식점과 상점이 들어서 있는 이국적인 거리입니다. 주로 외국인 방문객이 많지만, 내국인들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말마다 세계 각국의 문화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겨울에는 지구촌 합창단 공연과 안산 오케스트라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 연인, 가족, 친구들과 함께 다문화거리에 한 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산외국인지원센터 전재구 소장



다문화 이해를 돕는 체험학습 공간

노란 유치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전통 가면을 신기한 듯 써보고, 처음 보는 동남아 전통 악기를 "동~동~" 두드려 보며 즐거워한다. 다문화홍보학습관의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은 전시된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 악기, 음식 등이 마냥 신기한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다문화강사의 수업을 듣고 있다.

"다문화홍보학습관은 다문화거리와 연계하여 내·외국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설립된 공간입니다. 다문화강사님들은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 수업을 하거나, 홍보관에서 하루 세 번, 예약 방문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홍보관 가득 들어서 있는 여러 나라의 전통유물은 600~700여 종으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직접 전시물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사전에 예약하면 다문화강사가 제공하는 다문화 이해 수업과 나라별 문화 체험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처음에는 외모가 다른 외국인선생님을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다문화강사의 친절함 설명에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외국인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으려 할 정도라고.

"홍보관은 다문화거리에 있지만 내국인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전통유물을 통해 다른 나라에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꾸려놓았습니다. 방문객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다문화강사님의 수업을 통해 서로 교감하며 외국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닌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HEME REVIEW : 외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응답하라~ 재한외국인의 '한국살이'

국내 체류 외국인 142만 5천여 명(2012년 11월말). 이들은 각기 다른 생김새만큼이나 저마다 다른 꿈과 희망을 안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낯선 문화와 언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한국생활에 대해 들어보자.

도안중 (22 베트남) / 유학생 ●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 회사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됐죠. 저는 한국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학생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신청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티브 (44 미국) / 회사원 ● 저는 1994년에 처음 한국에 왔어요. 군인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은 항공 관련 업무를 맡고 있죠. 일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가는데요. 이 때문에 비자 문제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할 때가 많죠. 하이코리아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이용해 보고 싶어요.



장명 (22 중국) / 재외동포 ● 저는 가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한국에 온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일단,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하면서 컴퓨터 공부에 집중하려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취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추청빈 (20 중국) / 유학생 ●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음식과 문화 등이 중국과 많이 달라 힘들었죠. 하지만 이젠 한국어도 많이 늘고, 한국 문화에도 적응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유학생은 아르바이트할 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저는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더군요. 저도 다음에는 한 번 이용해봐야겠어요.



도봉국 (33 중국) / 재외동포 ● 저는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를 통해 한 달 전 한국에 왔어요.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기만 한데요. 얼마 전 동포 '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우면서 한국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샘 (31 아랍) / 영어강사 ● 저는 아내가 한국인이예요. 아내가 있어서 그런지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궁금한 게 있거나 말이 통하지 않을 때면 아내의 도움을 받은 됐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1345'를 이용해 한국생활 정보와 출입국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한국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자 문제를 영어로 상담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과거와 미래, 색다른 오늘이 함께하는 곳

예부터 바닷길로 한국의 근대사를 열었던 인천항, 하늘길로 날아온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첫 발을 내딛는 인천국제공항. 인천에는 항구의 이국적인 풍경과 오랜 역사,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국제도시의 미래가 공존한다. 언제든 찾을 수 있어 익숙하지만 알수록 새롭고 곳곳마다 색다른 도시, 인천으로 떠나보자.

The Incheon Port, open to the seawa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nd today,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elcomes foreign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The exotic landscape and the long history of this harbor city and its future as an international city are clearly apparent. Incheon may seem familiar but it is more unique than you think. Let's travel to the beautiful city of Incheon.

INCHAEON

A place with a different story to tell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다채로운 매력으로 가득한 국제 도시 인천은 스페인의 마드리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과 같은 위도에 자리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시작된 항구 도시로 인천공항, 송도신도시와 함께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은 예부터 중국·서양·한반도의 문물이 교류하는 관문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인접한데다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2011년에는 11만 여명, 2012년에는 16만 여명의 외국인이 인천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Located on the same latitude as Madrid, San Francisco and Washington D.C., Incheon is a harbor city that sparked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e coastal city, which is fast growing as an international cit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Songdo New Town, has been a gateway of trade and exchanges between Korea, China, and the West.

Incheon boasts various attractions including Chinatown and Jayu Park, which demonstrate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a port city with cruise ships, marketplaces selling fresh seafood, and the Yeonan Pier, where tourists can bask under the Sun. In addition, there are many other exotic attractions including the Songdo New Town, built to promote trade in the advanced, IT and international trade industries, and the Sorae Wetland Eco Park, where visitors can learn about the unique ecosystems and the salt pan.

Incheon is close to Yeongjong Island, on which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situated, and offers easy and convenient access to the public transit system including the bus and the subway to and from Seoul and other Gyeonggi regions. With these advantage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foreign tourists coming to Incheon from some 110,000 tourists in 2011 to some 160,000 in 2012.



The future of Incheon, Songdo New Town

A 15-min drive from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ll take you to Songdo New Town, which is a planned city built to promote the advanced internationalization era.

Go to the Compact Smart City located near Exit #4 of the Central Park Station to learn more abou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ncheon. The exhibition hall houses vivid models and video clips that demonstrate the history of the city since its foundation. The 410,000-m2 Central Park with Korea's first artificial waterway (1.8km in length) built to draw seawater is one of the famous attractions in the area.

Take a water taxi from the street across from the North-East Asia Trade Tower to travel across the waterway connecting the Central Park Station and the observatory of Incheon Bridge to observe the substantial development of Songdo. In winter, when water taxis are not in operation, why don't you walk along the Mirae-gil lined with various attractions including the Compact Smart City, Tri-Bowl, Incheon Bridge Observatory, Canal Walk, Songdo Central Park, and Event Zone Popcon City.

Chinatown, demonstrating the upheaval in modern history

Walk for three minutes toward the street across from the Incheon Station (Subway Line No. 1) and you will come across Chinatown, which formed as the merchants from the Qing Dynasty began to settle in 1883. Throughout this area, you can see the exotic landscapes that are reminiscent of the days when the Incheon port first opened. The streets are lined with shops selling the traditional costumes and accessories of China, Chinese tea and teacups, mooncake, jajangmyeon (noodle in black bean sauce) among others. Jajangmeyon, which Chinatown is famous for, is a variation of a popular



nighttime noodle snack among Chinese people who migrated from Shandong Province. The dumplings cooked in the oven are also popular eats.

The dynamic scenery of the Incheon Port can be viewed at the square located at the heart of Jayu Park. The statue of General MacArthur and the Memorial Tower erected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found at the Park show traces of history during which the exchanges between the two nations increased rapidly. The exotic buildings dating from the port opening period are another must-see in Chinatown. There are buildings that are over 100 years old including the Daebul Hotel, which is the first hotel established in Korea and where Westerners came to stay, Jemulpogurakbu, frequented by foreign envoys, Naedong Seonggonghoe Cathedral, Japan 58 Bank and more.

Enjoying the beauty of nature city, Sorae Wetland Eco Park

Sorae Wetland Eco Park, where visitors can observe various marine creatures and learn about salt ponds, was established on an abandoned salt pond. After the area was abandoned, a salt wetland was created with a unique ecosystem that seemed like a mix of freshwater and saltwater ecosystems, and it began to be inhabited by migratory birds. After investing much effort for 10 years, the area was reborn as an eco park. The 1.56m2 area contains 4 wetlands, a marine ecosystem exhibition hall, a migratory birds observatory, an outdoor observation center, an experiential learning center for salt production, and a mud flat experience center. The park is frequented by families as it is the one and only place in the Seoul national capital area, where visitors can observe plants and other creatures inhabiting mud flats and learn about the process of producing natural salt. Also, the reed field with windmills is a popular photo spot.

Complex Fish Market, offering an abundance of fresh seafood

Situated across from the Yeonan Pier of Incheon is the Incheon Complex Fish Market, one of the three largest fisheries market next to Noryangjin Seafood Market and Busan Jagalchi Market. The fresh seafood caught by fishermen off the west coast is what attracts countless seafood lovers to some 500 shops and restaurants lining up the streets. Blood from the freshly caught wild fish including halibut, sea bream and soft shell clam is removed to be placed in ice for fermentation for a period of 1 to 5 days. This seafood market, which has never been closed since its opening in 1975, is well-organized according to seafood types, making it convenient for the shoppers, and is crowded with tourists and residents who find the affordable prices irresistible. 🍷



"I like the free atmosphere of Incheon."

There are many things to see and eat in Incheon, and I love the free atmosphere as well. The meal I had in Chinatown consisting of jajangmyeon, lamp skewers and sweet and sour pork was very satisfying. The clam barbecue and the trip to Wolmi Island were unforgettable.

Nathan
[30, USA] / lecturer



Incheon Travel TIP

Watch the Sunrise at the Famous Attractions in Incheon

Jeokseoksa

On Ganghwa Island, situated an hour away from Seoul, is Jeokseoksa, the perfect place to watch the sunrise and the sunset.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three best places in Korea to view the beautiful glow of the setting sun, and has been designated as one of the 8 best scenic places on the island. In particular, the golden glow of the sunrise captured across the wildgrass field is breathtaking.



Yeongjong Island

The sunrise can be seen from Yeongjong Island at the right timing of the flood tide, and the sun rises with the backdrop of the strip of land that looks like an ivory or a fin. Remember, this sunset can be viewed in front of Gonghang Raw Fish Center, which is located at the entry of Jamjindo Wharf, the boarding place for the boat to Muui Island.



Seoksangot

Located near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eoksangot is a famous place to watch the sunrise. It is visited by countless tourists, who come to see the sunrise with the Incheon Bridge as the backdrop. Also, because of its proximity to the airport, one can also watch airplanes flying across the sky. It offers a beautiful view of the sunrise that can only be seen in Incheon.





낮선 땅에서 만난 보디가드, 아픔 잊고 시작한 행복일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즐겁게 살다보니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더라고요” 2004년 몽골에서 이혼의 아픔을 겪고 한국에 온 짬보 강치맥 씨에게 행복은 일상에서 맞는 소소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사로 근무하며 다누리 기자단 기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녀를 찾아 한국 생활과 가족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남편, 한국생활의 유일한 행복

밝은 미소와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의 강치맥(45) 씨에게선 정겨운 한국 아줌마의 푸근함이 느껴진다. 그런 그녀에게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발을 디딘 낯선 땅 한국은 녹녹치 않은 나라였다. 몽골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다 지인의 권유로 2004년 한국으로 오게 된 그녀는 서울, 강원도의 식당, 공장 등에서 일하다 경기도로 건너와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고된 노동과 힘든 의사소통, 그리고 외로움으로 치쳐가던 어느 날 식당 단골손님이자 지금의 남편인 최영민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남편의 첫 인상은 무뚝뚝하고 감정표현이 서투른 한국 아저씨였어요. 그런 그가 처음에 저에게 한말이, ‘한국어 빨리 배워라’였어요. 그래야 가까워진다고. 그리고 그 아저씨는 어느새 저에게 ‘오빠’로 불리며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9백 명이 식사를 해결하는 큰 식당이었기에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는 강치맥 씨가 안쓰러웠던 최영민 씨는 직접 출퇴근도 시켜주고 늘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썼다고 한다. 그리고 식당을 그만뒀던 언고개 없게 된 그녀와 함께 지금 터를 잡고 있는 아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한국 아줌마가 된 짬보 강치맥 씨

강치맥 씨도, 최영민 씨도 한 번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재혼의 결정은 쉽지 않았다. 특히 타국 남자와의 재혼은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강치맥 씨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굳히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남편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신을 챙기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제 속옷 빨래며, 피곤해 지쳐하는 저를 직접 씻겨 주면서 굳은 일도 마다않는 그를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에 더해 누구보다 엄마의 행복한 삶을 응원해준 몽골에 있는 큰 딸 ‘나모나와 스스럼없이 엄마의 자리를 인정해준 한국의 작은 딸 ‘솔’이. 병상에 누워서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허락해주신 시어머니까지. 그녀를 가족으로 묶이게 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

서로 반지를 주고받으며 변함없는 사랑을 하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몽골 아줌마에서 한국 아줌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만드는 행복에너지

아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사로 일하는 그녀는 ‘다누리 기자단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어느 날 작은딸이 신청한 ‘한마당 글짓기 대회’에 참여해 장원을 수상하게 된 강치맥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바로, ‘글’로서 다문화의 공감을 이끄는 일.

그녀는 ‘나에게 다가온 첫 선겨’, ‘한국의 신발 벗는 문화’, ‘순간의 문’, ‘나의 제주도 여행’ 등 특유의 감성이 녹아든 글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이주여성이 느끼는 한국을 담백하게 담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글은 지난 11월에는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의 ‘2012 모국어로 쓰는 나의 한국살이’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주여성들은 문화차이, 언어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자신감과 꿈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새로운 삶과 길을 열 수 있어요.” 그녀는 이주여성 스스로가 당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꿈을 갖기를 권한다.

그녀 역시 지금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써온 글과 앞으로 쓰게 될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고 싶어요.” 그녀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행복에너지를 뿜어내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걷고~소통하며 즐기는 건강한 축제 한마당!

지난 10월 28일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재한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제2회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한마음걷기축제'가 열리기 때문.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내·외국인이 한마음으로 걸으며, 다양한 문화를 교류했던 축제 현장으로 떠나 보자.

유난히 화창했던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된 '제2회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걷기축제'(이하 한마음걷기축제)는 법무부와 (사)건강사회운동본부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재한외국인과 일반시민 총 3천5백 명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자리를 메웠다. 특히 이번 행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마감 일주일 전에 정원 3천5백 명이 모두 신청접수를 마감해 축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한마음걷기축제는 법무부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고충을 상담해 주고, 내·외국인이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화합의 축제다. 이 밖에도 외국인들을 위해 무료건강검진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으며, 각종 문화공연과 고국에 편지보내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걷고, 화합하고, 배려하고, 나누고'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축제는 슬로건 그대로 내·외국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 소통하고, 이

를 통해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걷기대회 전 준비운동도 신나게~

주최 측에서 준비한 배낭과 간식, 번호판을 받아 든 참가자들은 대회 시작 전부터 설레는 듯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타악 퍼포먼스팀 '두드락'의 오프닝 무대가 시작되자 흠뻑 젖어 있던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들었다. 참가자들은 어느새 관객이 되어 강렬한 타악기의 울림에 눈을 떼지 못하며 카메라에 공연 모습을 담기도 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공연단은 온몸으로 박자를 맞추며 더욱 신명 나는 무대를 연출했고 객석에서도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걷기대회를 앞둔 만큼 타악기의 연주에 맞춰 몸을 푸는 시간도 가졌다. 진행자의 구령에 따라 박자를 맞춰 준비운동 동작을 따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모두 다 함께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이 활기차다.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홍보대사 에바 포피엘,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장,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도 참가자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따라 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포구의 주민이 40만 명인데요, 마포구 주민의 4배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도 25만 명이 나 됩니다. 글로벌 시대 속에서 이곳에 오신 외국인분들이 우리나라의 주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마감 일주일 전에 정원 3천 명이 모두 신청접수를 마감해 축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과 악기, 장식물들을 전시해 놓아 참가자들이 직접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글로벌 코리아’를 위해 한 발씩 걸어 나갑니다.”라고 격려사를 전하며 본격적인 걷기대회가 시작됐다.

코스를 완주한 모두가 진정한 승자!

행사 전날 내린 가을비가 무색할 만큼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유난히 기분 좋았던 일요일 오전. 노란 번호판을 달고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 행복한 미소가 번져있다. 사회자 개그맨 박준형 씨의 진행에 따라 걷기대회의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자,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출발하기 시작한다. 기록을 예측하는 경기가 아닌 만큼 참가자들은 선선한 가을 날씨를 즐기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번 걷기대회 코스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잇는 둘레길 6.5km.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절정을 이룬 산책길을 따라 걸어가 는 참가자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인다. 한국에서 산 지 2년째라는 결혼이민자 부티안(21 베트남) 씨는 “걷기대회에는 처음 참가했어요. 단풍도 정말 예쁘고 날씨도 좋아서 가을을 맘껏 느낄 수 있었어요. 둘레길을 걷는 동안 모던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라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1시간에서 2시간까지...참가자들의 완주기록은 제각각이었지만, 내외국인이 함께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했던 마음만은 모두 한결같았다.

고충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마음걷기축제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를 비롯한 서울, 양주, 수원 등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재한외국인을 위한 고충상담을 실시했다. 출입국직원들은 전용 부스에서 재한외국인에게 체류업무, 국적, 사증, 사회통합 등 전반적인 출입국 관련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었다.

현장에서 고충상담을 진행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정현 체류실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스에서는 체류업무 일반과 국적취득, 귀화절차, 사증, 기타 출입국관리법 사항과 관련된 문제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자 발급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은데요. 세부적인 것을 알려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라며 고충상담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인 남편을 둔 박광미(46) 씨는 “아이들의 체류문제 때문에 고충상담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는 체류가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는 체류 비자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행사에 참가했었는데요. 참가할 때마다 재밌고 행복해지는 행사라고 생각해요.”라며 내년에도 꼭 참가하겠다고 웃어 보였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축제의 장

걷기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체험존, 다양한 문화체험부스 등이 마련되었다. 무료 건강검진 코너에서는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과, 한방과, 구강검사, 약국, 혈당체크 등을 할 수 있는 건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했다. 체험존에서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단체줄넘기, 스피트스택스, 페이스페인팅, 고국에 편지보내기 등 다양한 코너를 준비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전통 문화체험 담당자들은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전통춤을 추며 자국의 전통문화를 알렸는데, 작년에 이어 2년째 캄보디아 문화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미령(26) 씨는 “아침 일찍 행사장에 도착해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전통물품들을 정리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요. 사람들이 의상이 멋있다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할 때는 정말 뿌듯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캄보디아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라고 전했다.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우연히 행사를 알게 됐어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축제에 참가했는데요. 날씨도 정말 좋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아요. 둘레길을 걸으며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쯔영티미움(베트남 21)**



“외국인의 고충, 정책개발에 반영하겠습니다”



2007년 정부합동 고충상담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외국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창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상담 창구가 많이 늘어났죠. 언제든지 고충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만큼, 지난해부터는 정부합동 고충상담과 걷기축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가 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2배에 가까운 인원이 참가했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참여자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참가자 수를 1천 명 정도 늘려 4천여 명의 내·외국인이 함께 축제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고충상담 창구와 모니터링 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개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추병선 사무관**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행복한 한 의사

글로벌 시대가 열리면서 이미 많은 분야에서 동서양의 구분 없이 유능한 인재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서양인에게는 문턱이 높은 분야가 있으니, 바로 동양의 신비한 의학이라는 한의학. 동양의 의술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상, 언어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한의학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서양인들에겐 그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양인 불모의 지대라 할 수 있는 한의학에서 서양인 최초의 한의사가 되어 20년째 의술을 펼치고 있는 라이문트 로이어 원장을 만났다.

라이문트 로이어 원장



강의, 진료, 상담, 회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라이문트 로이어 원장을 만난 건 그의 진료가 끝나는 오후 6시였다. 평범한 직장인 같으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시간, 로이어 원장의 일과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마친 후 바쁠 때는 오후 8~9시경까지는 환자 진료를 봅니다. 그것이 끝나도 환자들의 상담전화를 받거나 하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갑니다.”

인터뷰가 오가는 중간에도 그에게는 끊임없이 환자의 상담전화와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서울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로이어 원장은 국내 유일의 서양인 한의사로 한국 주재원과 의료관광객 또는 내국인을 진료하면서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로 일하면서 한국 한의학을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문매체 칼럼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다.

우연한 인연, 한의학과 사랑에 빠지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태권도를 하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너무 아파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같이 운동하는 사부님이 침을 맞으면 좋다고 추천해 줘서 한의원을 가게 됐지요. 그런데 발목을 다쳤는데 손과 목 등 다른 곳에 여러 군데 침을 놓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서 잘못 치료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통증이 완화되더라고요.”

동양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동양 무술에 매료되어 한국을 찾았던 오스트리아 청년은 다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침을 놓아 통증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신비한 의술에 빠져들었다. 직접 몸으로 그 효과를 체감했기에 한의학에 매료되는 속도는 빨랐다. 결국 그는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한국 잔류를 결정했다. 물론 인생의 행로를 바꾸는 그의 결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부모님은 언어와 문화 모든 것이 다른 낯선 동양나라에서 6~7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의학 공부를겠다는 아들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엔 외국인의 입학허가를 허가하는 한의대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던 그는 지인

의 소개로 외국인도 공부할 수 있는 대구경산대학교, 지금의 대구한의대를 알게 된다.

중의학과 다른 한의학 매력 세계에 알려야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는 한국 의료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정부와 한의사 협회에서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한국 한의학은 중의학이나 일본 의학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 한의학은 현대에 와서 과학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또한 한국에는 사상체질과 같이 굉장히 재미있는 의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지요. 무엇보다 한의학은 통증이

있는 일부의 질환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이는 한의학의 기본적인 철학이기도 한데, 이러한 점들이 한국 한의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로도 일하고 있는 그는 한의학의 매력에 빠져있는 만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각자의 병원에서 다양한 의료관광객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도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에게 세계 수준에 있는 한국의 양방과 한방을 교육해 한국 의학을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들이 한국에서 좋은 의학을 배워 고국에서 진료활동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의학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중국이나 몽골, 동남아시아 등 외국으로 진출을 시작한 양방과 마찬가지로 한방도 외국으로 진출해 진료와 치료, 교육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환자의 기능적 균형을 잡아주는 한의학

양방과 한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양방은 예방 의학이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치료다. 검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진단명이 나오고, 진단명이 나오면 치료가 시작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단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한의

학은 전반적인 기능을 본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기능에 불균형이 생겨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면 다른 부분을 통해 환자의 균형을 잡아준다. 로이어 원장이 매력을 느낀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다.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퇴행성 질환과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양방보다 오히려 한방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로이어 원장은 양방과 한방을 조합하여 진료를 하고 있다. 양방으로 진단하고 치료는 전통적인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에 있어서도 약침, 춘화, 한약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을 이용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20여 명의 환자를 보는데 이중 90%는 한국 주재원과 의료관광객 등 외국인이에요. 처음에는 한방 진료를 낫설어 하다가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시고는 모두들 감탄을 하시죠. 그럴 때 다시금 한의학의 위대함을 체감하게 되고 그 환자가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를 물어보니 그는 몇 년 전 치료했던 독일 여성을 꼽는다. 한국 초빙교수로 온 40대 여성으로 수업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껴 그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왔다고.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가 터져 있더군요. 상태가 굉장히 심했는데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수술 없이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부인과 문제도 있었는데 고국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했는데도 완치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저에게 치료를 받고 몇 년 동안 고생했던 문제가 사라져 본인도 놀라 했어요. 이제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청국장을 사랑하는 푸른 눈의 한의사

어느덧 한국 생활을 시작한지 20년. 이제는 한국 사람이 거의 다 됐다는 로이어 원장은 식성까지도 완전한 한국인이다.

“한국문화 중에 좋아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 음식 중에 청국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손발이 차가워져서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되는데 청국장을 먹으면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발가락까지 퍼져 퍼지는 것이 느껴져 위대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기능에 불균형이 생겨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면 다른 부분을 통해 환자의 균형을 잡아준다
로이어 원장이 매력을 느낀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다

청국장엔 특유의 향 때문에 외국인이 쉽사리 접하기엔 난이도가 높은 전통식품. 하지만 로이어 원장은 청국장에 푹 빠져 최고의 한국 음식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이 밖에도 그가 좋아하는 것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동양의 무술. 옛날에는 태권도나 검도 같은 무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명상을 하면서 한국 태극권을 취미로 하고 있다는 그는 한국에 온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며, 한국에서 한의사로 일하게 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말한다.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교육에 더 힘쓰고 싶다는 로이어 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 8년간 써온 칼럼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고 기회가 되면 해외에 나가 한국 한의학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고 얘기한다.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푸른 눈의 한의사 라이문트 로이어 원장. 그의 뜨거운 한국 사랑과 한의학의 우수성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Q&A

Q 미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학교 내 도서관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려고 하는데요. 유학(D-2) 체류자격으로도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 어학연수생은 해당 연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유학(D-2)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자, 정규학위(석·박사 포함)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또한, 일반연수(D-4) 체류 자격을 갖고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연수하고 있는 자로 일반연수(D-4) 자격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도 해당됩니다.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은 학부과정에 있는 자의 경우,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과정 및 논문 준비 중인 자는 학기 중 주당 30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에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허용 분야는 통·번역, 도서관 사서 정리, 구내 환경정비, 음식점 보조, 일반사무보조,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실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정식 취업이 아닌 한시적 연구 활동과 같은 분야로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입니다. 시간제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전자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Q I am currently a foreign student from the United States with the D-2 visa. Starting next semester, I plan to work as a work-study scholarship student at my university library. Is this possible with my current visa or must I receive a different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

A A foreign student seeking employment shall receive permission for any activities that go beyond current status of stay. Only part-time employment is permitted and requires a recommendation from an academic advisor (full-time) or a language institute director for language program students. At the time of application, applicant shall be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n undergraduate enrolled in an institute of high learning (higher than technical/ vocational college); a graduate of certified curricula (bachelors, masters, or doctorate) in thesis preparation; or a language institute fellow with a D-4 visa at a language institute affiliated with a designated undergraduate institution (at least six months after D-4 visa issuance date). Furthermore, permitted students shall respect the part-time employment hours. The maximum hours (per week) are as follows during the semester: 20 hours for undergraduates and 30 for masters course students, doctorate students, and those in thesis preparation. However, there is no limit placed during public holidays or vacation periods. Allowed areas of work are generic, only if closely related to the applicant's subject of study. Examples include: translation work, librarianship assistance, environment management work, food service, office assistance, or other work that runs parallel to the applicant's (temporary) area of research. Applications may be submitted at the immigration office under proper jurisdiction or online via Hi Korea (www.hikorea.go.kr).

Q 방문취업자격(H-2)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입니다. 중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방학 동안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방문취업자격, 재외동포자격, 영주자격 모두 해당)의 경우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은 90일 동안 체류가 유효한 단기일반(C-3) 사증이 발급됩니다. 단, 초청한 자녀가 불법체류를 할 경우 부모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I am a Korean-Chinese in Korea with a working visit (H-2) visa. I want to invite my child currently studying at a university in China to stay in Korea for his vacation period. What should I do?

A Koreans with foreign citizenship with visa for long-term sojourn in Korea (working-visit holders, overseas Koreans, and permanent residents) may invite their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9 and 25 for stay in Korea. Temporary visit permit (C-3) will be granted for a legal stay up to 90 days. Keep in mind, if the invited child stays beyond the allowed legal period of stay, the inviting parent may be rejected permission for extension of stay.

Immigration Now



- 32 **우리팀 포커스**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 34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한대만대표부
- 37 **출입국 Numbers**
- 38 **WOW 출입국 탐방**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44 **해외 단신** 세계이민동향 No.82
- 48 **출입국 News**



‘동포와 함께하는 지원단, 희망찬 미래의 동반자’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 2010.7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 설립 및 업무개시
- 2010.9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및 법무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 2012.7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기관 지정
- 2012.10 동포 '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 실시

주요업무

- 재외동포 기술교육 지정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 수강생 등록·관리 및 고충상담 지원
- 국내체류 동포를 위한 사회교육

재외동포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들에게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국내 취업과 안정적인 본국생활을 지원하는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 '동포와 함께하는 지원단, 희망찬 미래의 동반자'라는 비전아래 재외동포의 기술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동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을 찾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외동포에게 국내 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2010년부터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2010년 7월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립했다. 현재 지원단은 전국 409개의 기술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체류자격변경추천서 발급, 동포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외동포기술교육은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추천'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국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기술직종을 하루 6시간씩 6주간 배우게 됩니다. 이 중 90%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방문취업자격변경추천서가 발급되는데요. 지원단은 재외동포의 교육기관 선정부터 추천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들이 기술교육을 통해 국내 또는 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재외동포의 빠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동포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동포 '기초 법·제도 안내 프로그램'이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 재외동포는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관련 주요 법령, 기초 법·제도, 국가 간 법률·문화의 차이 등 한국생활의 필수적인 정보를 안내받는다.

이밖에도 지원단은 기술교육기관의 엄중한 선정·관리를 위해 교육기관 관리시스템인 'TEMS(템스)'를 개발하는 한편, 중국현지 출장을 통해 재외동포에게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민과 재외동포가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지원단. 앞으로 재외동포와 관련된 모든 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하는 것이 목표인 지원단이 국내 제일의 재외동포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1 **손종하** 단장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동포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지원하는 동포지원단을 만들겠습니다.
- 2 **남기빈** 운영국장 2013년 지원단 내실도 든든히 하는 한편, 활발한 동포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파이팅!
- 3 **신애란** 과장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 4 **성혜연** 대리 보다 안정적인 동포자원을 위해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과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5 **최보경** 사원 지원단을 찾는 동포들에게 친절함 미소와 상냥한 말투는 기본!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韓-臺灣 문화·경제 분야의 활발한 교류 통해 우호적 관계 지속할 것

역사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한국과 대만은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 학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꾀하며 상호 주요 교역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주한대만대표부의 오스카 첸 연락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대만

위치 동북아시아 | 언어 중국어 | 기후 아열대성기후, 열대성기후
종교 불교 35%, 도교 33%, 기타 | 인구 22,974,347 명(2010)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만 이민서(NIA)의 연락관으로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미국 보스턴 등을 거쳐 현재는 한국에서 근무 중이며,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주한대만대표부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는 무엇입니까?

한국과 대만은 각자의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이민 추세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대만의 출입국이민서(NIA)와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는 출입국 업무를 수행한다는 동일한 임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KIS와 업무협력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상호이해관계를 쌓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을 방문하려는 본토 중국인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비자 발급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에 위치한 대만 이민서 본부에서는 출입국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같은 각종 범죄 예방정책도 주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첫 이미지는 어떤가요?

저는 올해 8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 때문인지 한국은 저에게 가까운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도 막연하게 낯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생각이 변했습니다. 아직도 한국 거리를 걷다 보면 모든 것이 놀랍고 흥미로우며, 때로는 문화충격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나라에 살면서 느끼게 되는 인상은 독서나 여행을 통해 얻는 정보나 이미지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특히, 업무에 있어 언어장벽으로 발생하는 오해나 법 관련 문제 등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의 한국 생활은 매우 즐겁습니다.

대만에서 한류는 어떤가요?

세계적으로 '관광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열풍'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현상으로서 대만은 물론, 세계 여러 곳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대만 곳곳에서도 한국 음식과 한국 전통공예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 문화가 대만에서 새로운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올해는 급증하는 출입국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타이베이와 김포공항을 잇는 새 비행노선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대만



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인 여행객은 특별한 절차 없이 90일 동안 대만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한국을 찾는 대만인 여행객도 동일합니다.

대만 워킹홀리데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대만의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부터 30세 사이의 한국 젊은이들에게 대만에서 180일까지 머무르며, 취업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taiwanembassy.org/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기회를 잘 활용해 단기취업 또는 여행을 즐기며 대만에 대해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만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한국 젊은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터넷 사이트는?

대만에 대한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로는 '타이완 인덱스(taiwanindepth.tw)', 대만 미식문화 웹(taiwanfoodculture.ne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을 통해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진출처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

*

주한대만대표부 (www.taiwanembassy.org/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광화문빌딩 6층 주한대만대표부

연락처 02-399-2780

서비스 이용 시간 월~ 금 09:00~12:00, 13:00~16:00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무엇인가요?

저는 한국문화 중 전통사상인 유교문화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 짧은 기간을 살면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 전반에는 유교문화가 퍼져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치관인 유교문화는 음식, 예술, 관광명소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계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해왔는데, 그 중 한국 사람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최근에는 맛깔스러운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국에 주재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우선하고 있는것은 언어입니다. 쉽지 않지만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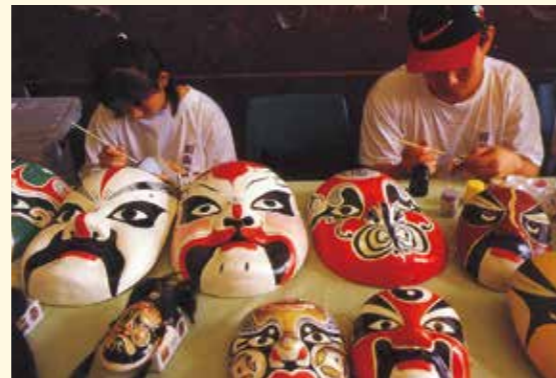
또한, 대만 이민서의 연락관으로서 저의 주된 목표는 KIS와 대만의 NIA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훌륭한 인재들과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As the liaison attaché of Taiwan NIA, I am currently serving my assignment in Korea. Much of my work is focused is strengthening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Taiwan NIA an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Taiwan NIA, located in Taipei, is responsible for policy-making and enforcement, including effort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Korea and Taiwan might be different but the NIA and KIS share the same duty of immigration service at a time when the trends of global immigration are irreversible.

The world is now witnessing the blow of "Hallyu", and Taiwan is no exception, where "Hallyu" is the latest and most popular subject of conversation. From cuisine to cultural icons, Korean culture has become the latest trend and fashion in Taiwan.

Taiwan opens its doors for the young people of Korea (between ages 18 to 30) to work in Taiwan without permit for a maximum of 180 days for each entry.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the NIA website. I hope many will take advantage of this wonderful opportunity to work in Taiwan and experience Taiwan on a whole new level.

During my assignment in Seoul, my foremost goal is to establish a cooperation panel between KIS and NIA as a liaison attaché. I sincerely look forward to cooperating with the outstanding member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 NUMBERS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3,648명 넘어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 가운데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도입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 이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의 지문·얼굴정보 확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와 불법체류자로의 전락을 방지하고자 실시되었다. 그동안 체류외국인 중 상당수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자진신고자가 3,648명(재외공관 신고자 포함)에 달했다. 9개국의 국민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이중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했다.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출국하여 6개월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다시 국내에 입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자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9월 11일 공고한 바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12월 1일 이후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향한 '아름다운 도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반 사무소의 업무를 비롯해 대구국제공항과 포항항의 심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종합출입국사무소이다. 아시아와 국내를 잇는 하늘과 바다의 길목 책임지며 재한외국인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영남권 중추도시인 대구광역시에는 예로부터 섬유산업이 발달한 도시. 현재도 대구 제3산업단지, 성서공단 등을 중심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서 있다. 대구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대구사무소)는 대구·구미 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2만 1천여 명을 비롯하여 5만 5천여 명의 재한외국인을 관할하고 있다.

관리과와 심사과로 구성된 대구사무소는 체류·사증·국적과 관련된 업무 전반과 출입국심사,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출입국사범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미와 포항에 출장소를 두고 대구국제공항과 포항항의 출입국 심사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는 명실공히 '종합출입국관리사무소'이다.

출입국 심사에서부터 체류관리, 출입국사범 단속까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해 출국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출입국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대구사무소. 사무소직원들은 바쁜 업무 와중에도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최고의 서비스를 위한 '삼제운동'

대구사무소 직원들이 하루 동안 처리하는 각종 체류허가 민원은 평균 272건. 이렇듯 많은 민원 처리에도 불구하고 대구사무소가 민원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결은 민원별로 접수창구를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이형구 관리과장은 "유학생 관련 업무, 외국인 투자자 상담 업무 등 민원 처리 소요 시간에 따라 민원접수창구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민원업무를 세분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며 대구사무소의 민원 서비스에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대구사무소의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가능케 한 또 다른 숨은 공신은 바로 '삼제운동'. 이 운동은 이상호 소장의 선도 아래 사무소 자체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때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리과 박미혜 직원은 "업무는 미루지 말고 제때에, 제자리에서, 제대로 해내자라는 취지에서 '삼제운동'을 실천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소장님의 뜻에 따라 이를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또한, '친절카드'와 '불친절카드'를 민원실에 비치해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항상 친절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업무는 미루지 말고 제때에,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하자라는 취지에서 '삼제운동'을 실천합니다. 대구사무소 직원들은 이를 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사무소는 관내 기업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고충과 요구에 맞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속 업무,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구사무소의 등록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다. 이 때문에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 출입국사범 단속·보호 등의 심사와 업무도 이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심사과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체류외국인의 동향조사. 주로 관내 체류외국인이나 업체에서 체류자격 연장·등록과 관련해 실태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조사한다. 또한, 대구사무소는 체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난 11월 30일까지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주로 신고나 제보에 의해 이뤄지며, 이 기간 동안은 동향조사 담당 직원들도 단속에 투입된다. 심사과 문병욱 과장은 “사업장을 단속할 때에는 무엇보다 직원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전 직원들에게 적법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단속 중 부상 외국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치료를 하고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며 단속에 있어 안전과 외국인의 인권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단속을 통해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 중 자녀가 있거나 심각한 신변의 위험에 처해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 일시해제허가제를 이용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체불인금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를 토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충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소통을 통한 맞춤 감동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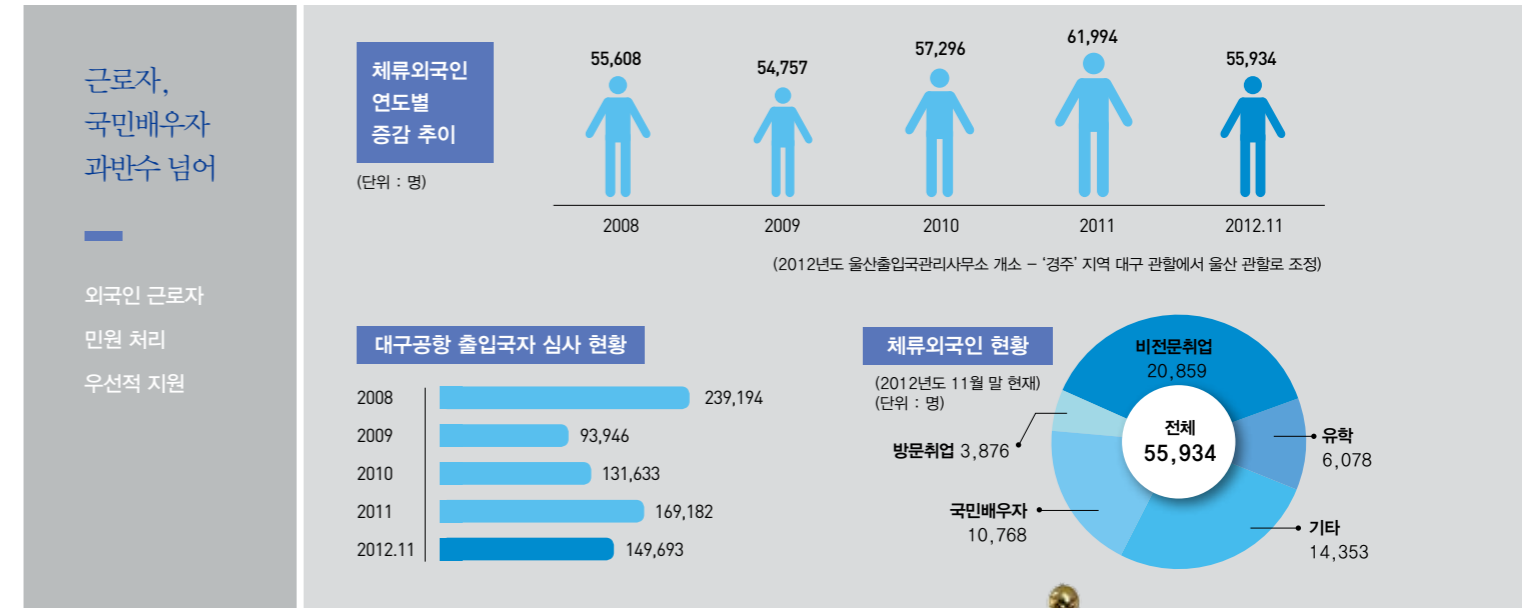
대구사무소는 외국인근로자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사증발급인증서에 관한 민원이 많은 편이다. 때에 따라 사무소직원들은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집중적으로 심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고.

“민원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시간에 민원접수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무시간이 끝난 후 남아 입력, 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문제와 관련해 사무소에 각종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 대구사무소는 관내 기업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고충과 요구에 맞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무소에서는 관할지역의 1만 700여 명의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해피스타트와 국제 안내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결혼이민자모니터링제도’. 각국의 모니터링 담당자들은 대구사무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사무소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를 알리고 있다. 사무소직원들은 수렴된 건의사항을 참작해 업무에 반영하며 사무소를 이용하는 외국인 민원인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호 소장과 전 직원은 SNS 1인 1계정 갖기 운동 및 대구사무소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dgimmigration>)을 통해 내·외부적인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현재 1천 명에 가까운 페이스북 친구들과 법무부 정책 및 사무소의 소식 등을 소통하며 최근에는 법무부 내 홍보 우수기관(9월)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는 대구사무소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다시 찾고 싶은 열린 사무소를 만들겠습니다” | 고향인 대구에서 출입국사무소 소장을 맡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올해 1월에 부임해 대구사무소를 ‘민원인이 다시 찾고 싶은 사무소,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사무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이 잘 따라준 결과, 사무소가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베푸는 친절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명심하며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대구사무소 직원들은 재한외국인분들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궁금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재한외국인들이 민원 이외에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고충을 상담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사무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출입국사무소의 이모저모

행사명 Title	일시 Date and Time	장소 Location	내용 Context	대상 Subject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Opening of Appli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Program	1차 1.10 ~ 2.1 2차 5.6 ~ 5.24 3차 7.29 ~ 8.16 1st : Jan 10 ~ Feb 1, 2013 2nd : May 6 ~ May 24, 2013 3rd : Jul 29 ~ Aug 16, 2013	www.socinet.go.kr 접수 Apply at www.socinet.go.kr	한국어,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Korean Language Training and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Anyone who desires to participate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Preliminary 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1차 2.16 13:00 2차 6.8 13:00 2차 8.31 13:00 1st : Feb 16, 2013, 13:00 2nd : Jun 8, 2013, 13:00 3rd : Aug 31, 2013, 13:00	거점운영대학 Central Operating Agencies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신청자 한국어 진단평가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valuation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신청자 Program applicants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Midterm 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1차 5.25 13:00 2차 8.17 13:00 3차 11.23 13:00 1st : May 25, 2013, 13:00 2nd : Aug 17, 2013, 13:00 3rd : Nov 23, 2013 13:00	거점운영대학 Central Operating Agencies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결과 중간평가 Midterm evaluation of Korean language course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수료자 Language course graduates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Final Evalu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1차 4.27 13:00 2차 7.27 13:00 3차 10.26 13:00 1st : Apr 27, 2013, 13:00 2nd : Jul 27, 2013, 13:00 3rd : Oct 26, 2013 13:00	거점운영대학 Central Operating Agencies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결과 최종평가 Final evaluation of the full training courses	사회통합프로그램 전과정 수료자 Full course graduates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International Marriage Guide Program	매월 1,3주 수요일 14:00 ~ 17:00 Every 1st & 3rd Wednesday 14:00-17:00	대구출입국 3층 교육장 3rd floor training room at Daegu Immigration	국제결혼절차 및 출입국관리법령, 국제결혼사례, 배우자 국가별 문화 등 안내 Guide on international marriage, Korean Immigration Act, international marriage cases, culture by country of spouse	국제결혼 예정자 Prospective international couples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Happy Start Program	매월 2,4주 목요일 15:00 ~ 17:00 Every 2nd & 4th Thursday 15:00-17:00	대구출입국 4층 회의실 4th floor Conference Room at Daegu Immigration Office	결혼이민자 부부를 대상으로 국내체류절차 및 한국생활정착안내 가이드 Guide on the procedure for stay and settlement in Korea	결혼이민자격 입국 초기부부 Newly married international couples with marriage migrant
결혼이민자 대표 및 네트워크 간담회 Meeting with Female Marriage Migrant Network	분기별 1회 Quarterly	대구출입국 4층 회의실 4th floor Conference Room at Daegu Immigration Office	자원봉사활동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토의 Volunteering training, Discussion for network vitalization	결혼이민자 대표 및 네트워크 회원 Representatives of married immigrants and network members
결혼이민자 워크숍 Immigrant marriage workshop	연중 1회 Once during the year	대구출입국 4층 회의실 4th floor Conference Room at Daegu Immigration Office	네트워크 단합 추진 및 다문화리더 발굴 Network intergration and developing multicultural leaders/ Discipline volunteer activities Discussion the method of network activation plan	결혼이민자 대표 및 네트워크 회원 Representatives of Married immigrants and Network members
세계인의 날 행사 Together Day Event	5. 20 May 20	미정 Uncertain	세계인의 날 기념 축하 행사 Celebration for Together Day	재한외국인 누구나 Any foreigners in Korea
이민통합정책 모니터단 간담회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monitoring group meetings	분기별 1회 Quarterly	대구출입국 4층 회의실 4th floor Conference Room at Daegu Immigration Office	사회통합정책 소개 및 의견 청취 Introduction of social policies and comment session	이민통합정책 모니터원 Monitoring agents of the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2013년 1월 부터 민원 수수료가 변경됩니다

보안성을 더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보안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 거소 신고증 발급수수료를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현행수수료는 1998년 인상 후 14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발급비용 상승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불편함을 덜어드립니다

직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혼잡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 하이코리아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 및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민원수수료를 10% 감면해 드립니다.

OVERSEAS NEWS BRIEF

세계 여러 나라의 출입국 관련 정책 및 이슈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세계 각국의 출입국정책을 알아보고, 최근 출입국 관련 뉴스를 통해 세계 동향을 파악한다.

해외단신



01 OECD, 회원국의 이민자 증가 추세

OECD가 새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OECD 국가 이민자 수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1961년 원활한 국제통상을 위해 북미주와 서유럽 위주의 20개 회원국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 가입해 현재 34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이 OECD 회원국이다. OECD는 2012년 12월 3일 회원국들의 이민 관련 지표를 포괄적으로 분석해 'Settling In'을 발표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OECD 국가 이민자 수가 총 2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스페인은 이민자 수가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서유럽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문기술 보유한 이민자 급증

대부분 OECD 국가들은 미숙련 노동자보다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우대함으로써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특히 영국, 캐나다, 호주와 독일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한 취업률의 원인이 되었다. 현재 OECD 국가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65%이며, OECD 국가 국민의 취업률은 67.5%이다. 국가별로 예를 들어보면, 영국의 이민자 취업률이 2000년도 62%에서 2010년도에는 66%로 증가했으며, 독일에서는 57%에서 62%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악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과 스페인은 70%에서 67%, 62%에서 57%로 각각 감소하였다. 교육적인 면에 있어 OECD 국가 이민자 자녀들의 상당수가 열등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을 제외한 몇몇 OECD 국가에서 11세에서 16세 사이에 이주한 자녀들의 학업 수준이 6세 이전에 이주한 자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orkpermit.com, 2012.12.10]



UNITED STATES OF AMERICA

02 미국, 불법 이민자수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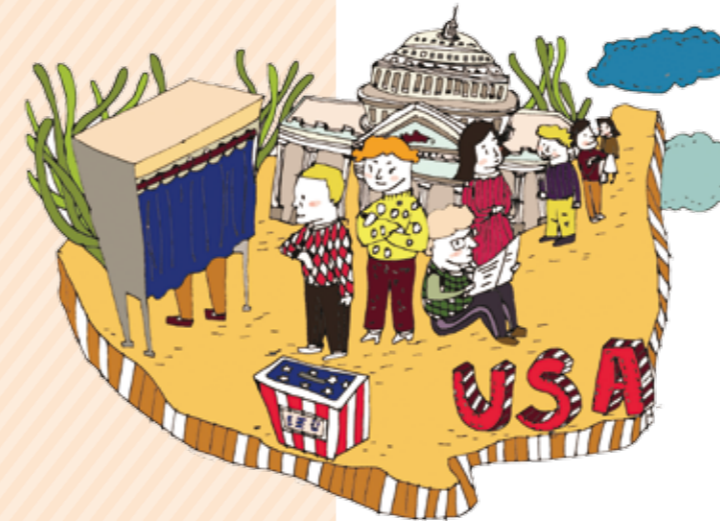
미국 AP통신사는 지난 몇 년간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실시된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약 1천2백만 명으로 추정되었던 불법체류자 수가 2011년에는 약 1천백만 명으로 추정돼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 중 약 80%는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 계통의 불법체류자다. AP 통신사는 1910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계 이민자 수가 히스패닉계 이민자 수를 뛰어넘었으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출생자의 약 28%가 불법체류자, 31%는 영주권 보유자, 그리고 37%는 미국 귀화 시민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Pew Research Center'의 인구 통계학자로서 미국 인구 조사국에 근무했던 제프리 파셀은 AP통신사를 통해 미국의 농업 분야, 보건 분야와 같은 저임금 인력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멕시코계 이민자 수는 더 이상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파셀 연구원이 추정하는 불법체류자의 수는 총인구의 외국 출생자 수에서 합법 이민자 숫자를 감한 것인데, 이는 미국 인구 조사국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셀은 미국 총 불법체류자 수의 약 55%는 멕시코계,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계는 약 25%, 마지막으로 아시아계는 약 10%라고 AP를 통해 밝혔다.

경기침체로 귀국하는 불법체류자 증가

미국 경제가 더욱 활발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 기간 미국으로 밀입국한 많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미국 경제의 쇠퇴, 한층 강화된 이민법 시행 및 노화되어 가는 멕시코계 인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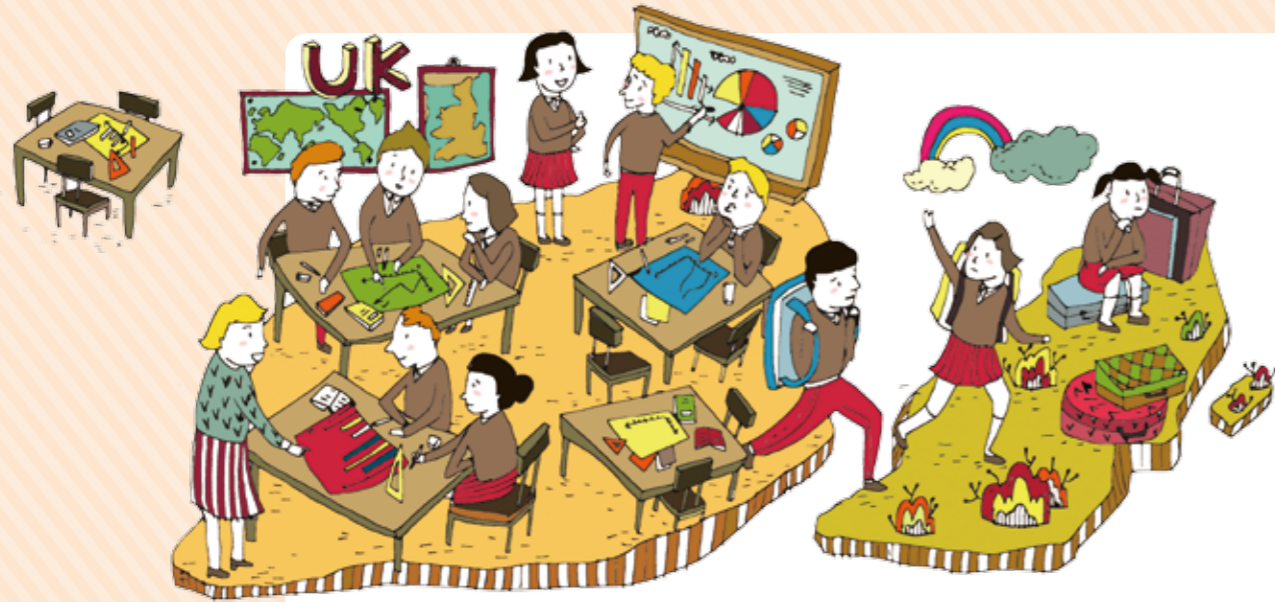
현재 멕시코계 불법체류자 입국 비율에는 거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가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경기 침체로 건축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어, 2000년도 중반 미국의 건축 붐으로 밀입국한 많은 불법체류자가 떠나고 있다. AP는 또한 외국 출생자 인구의 노령화를 지적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생자의 44%가 45세 이상이며, 점점 낮아지는 이민자 출산율 감소 현상을 주목했다.



이민정책 개혁, 화두로 떠올라

AP는 지난 몇십 년 간 청소년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최근 미국 의회가 제안하고 시행 중인 미국 시민권 정책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Dream Act(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는 미성년자인 불법체류자에게 조건부 미국 영주권을 허락하지만, 나이제한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권이 없는 불법체류 신분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계 단체들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를 확실히 지지함으로써 이민정책 개혁이 정치 논쟁에 큰 화두가 되었다. 라틴아메리카계는 오바마가 제안한 국외 추방 임시 면제 방침을 옹호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의 'self-deportation' 정책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 올해 대선에 히스패닉 유권자의 최다기록 투표율로 이민정책 개혁은 정치적 논쟁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으며, 상당수의 미국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더욱 확대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abc news, 2012.12.06]



03 영국, 순인구 이동 20만 이하로 감소

영국 정부의 공식자료 발표에 의하면 작년 영국의 순인구 이동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순인구 이동 수치는 특정한 지역 내의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의 차이로, 영국에서 올해 3월을 기준으로 24만 2천 명에서 18만 3천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요 원인은 외국인 유학생이 상당수 감소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영국 정부는 매년 만 명 단위로 순인구 이동 수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인 영국 보수당은 순인구 이동의 감소를 당 이민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임시자료에 의하면 최근의 순인구 이동수치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강경 이민방침으로 외국인 유학생 감소

2011년과 2012년 사이 영국으로 이주한 이주민의 수는 과거보다 4만 2천 명 감소한 53만 6천 명으로, 비유럽연합 국적자는 31만 7천 명에서 29만 6천 명으로 감소했다. 영국 통계청은 영국으로 이주한 이주민 수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영국의 최대 유학생 시장인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영국을 떠난 사람의 수는 10만 8천여 명에서 12만 7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영국의 이민정책본부장 마크 하퍼(Mark Harper)는 “이와 같은 수치는 영국정부가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을 다시 확고하게 통제해 온 노력의 결과다. 우리 정부는 강경 방침을 실시함으로써 순인구 이동을 십만 명 단위에서 만 명 단위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순인구 이동 감소를 목표로 한 정책 변화가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뜻하며, 이번 임기

의회가 마치기 전까지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하퍼는 영국의 총 외국인 유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대학 분야의 학생비자 신청은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며, 영국이 아직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더욱 강력한 이민정책 방침을 옹호하는 싱크탱크 'Migration Watch'는 순인구 이동 감소 현상을 반겼다. 'Migration Watch'의 회장 썬 앤드류 그린(Sir Andrew Green)은 “이 현상은 정부가 외국인 이민자 유입 수치를 감소하려는 올바른 노력의 결과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BELGIUM



순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비용 문제 발생

BBC의 내무 특파원 대니 쇼(Danny Shaw)는 “2004년 이후 최저 전입인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는 2015년 순인구 이동을 10만 명으로 감소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아직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국정부의 순인구 이동 감소 목표는 연립 정부 내 보수당과 토리당원을 포함한 자유민주당 사이에 이미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보수당 출신인 영국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밝혔다. 또한, 순인구 이동 감소로 인한 총 학생 수 감소가 불러오는 심각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경고했다.

영국의 공공 정책 연구소로서 중도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Institute of Policy Research'의 세라 멀리(Sarah Mulley)는 “강경이민정책을 통해 남용되고 있는 학생비자 시스템을 고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학구열을 가진 성실한 학생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멀리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26% 이상의 학생 비자 수 감소는 궁극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제시하며 “역설적인 점은 유학생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순인구 이동이 가져오는 영향은 결국 일시적이란 것이다. 전입인구 수의 감소는 결국 전출인구의 감소라는 뜻이기에, 순인구 이동도 결국 오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BBC News, 2012.11.29]

04 벨기에, 비EU 국가 출신 이민자 취업률 저조

벨기에에 거주하고 있는 비EU권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48.5%만이 취업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는 EU 국가 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판단된다. 비EU 권역 출신 이민자의 취업자격 부족이 낮은 취업률의 가장 큰 원인이며, 근로 시장에서의 불평등 또한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EU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은 벨기에 국민의 취업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EU 국가 출신의 이민자 절반이 취업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25% 이하이다.

외국출신의 이민자들이 벨기에에서든 해외에서든 고등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들 이민자의 취업률은 벨기에 내국인의 취업률보다 월등히 낮다. EU 공식통계에 따르면 EU 권역 외부 국가출신 이민자들의 EU 권역 내 취업은 58.1%에 이른다.

[BBC News, 2012.12.11]



제2회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한미음견기축제 재한외국인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법무부는 (사)건강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일반시민 3,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한미음견기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고충을 상담해 주고 내·외국인이 함께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정부합동 고충상담은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빨리 적응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걷기축제와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국가 미래를 위한 '균형 잡힌 외국인정책' 추진



법무부는 11월 9일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외국인정책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어 11월 28일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2008~201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013~2017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종합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우수인재 유치와 인권, 다문화, 민원편의 제공 등을 강조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가치를 지속 추진하면서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정부(17개 부처참여)는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 운용 환승관광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유치 적극 지원

법무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오는 2013년 1월 29일까지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범 운용한다. 이 제도를 통해 환승관광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기본 제3국 여행 통과여객과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다. 또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인단체관광객으로 12시간 이내에 수도권을 관광한 후 국내선으로 환승하여 제주도로 이동하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제도 운용 시 안전가이드(출입국도우미)를 비치해 환승객의 이탈을 막아 정시 출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승객에게 출입국 안내를 지원하여 외국인관광객이 편리하게 환승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교육 2만 5천 명, 방문취업 3만 명 선발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방문취업 선발자 추첨



지난 12월 1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는 2013년도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방문취업 선발 전산추첨이 실시됐다. 이날 추첨은 공정성을 위해 출입국정책담당장, 서울조선족교회, 한중동포신문 등 동포단체, 언론단체, 국내체류 중국동포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사전에 온라인으로 기술교육·방문취업제도를 신청한 사람은 총 146,887명으로 이중 기술교육 2만 5천 명, 방문취업 3만 명을 선발했다.

전산추첨 당첨 여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동 또는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 시기에 맞춰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사증이나 단기방문 사증(C-3)을 신청하면 된다. 기술교육대상자의 경우,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www.oktsg.or.kr)를 참고해 기술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직종과 교육을 선택한 후에는 기술교육 과정(6주)을 정상적으로 마쳐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2월 17일 청사 신축·이전 기념해 진행 거제출장소 개청식 열려



지난 12월 1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 개청식이 열렸다. 이번 개청식은 거제출장소 청사가 신축·이전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권민호 거제시장, 창원·부산·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거제출장소는 각종 출입국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30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400여 명의 내·외국인이 하나되어 음악으로 교감 서울출입국, 외국인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개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2월 21일 양천문화회관 해누리홀에서 결혼이민자 등 재한외국인, 지역주민, 출입국직원이 함께하는 '재한외국인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서울출입국 사회통합위원회, (재)한국이민재단, (사)한국예총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지역주민, 출입국직원 등 400여 명의 내·외국인이 함께해 열기를 더했다. 인기가수 미소걸스, (사)뿌리파예술팀의 한국전통타악 공연, 하타슈지의 어쿠스틱기타연주 등의 무대 공연이 펼쳐졌고, 관객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성락송 소장은 "재한외국인과 지역주민, 출입국직원이 만국의 공동언어인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장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K.I.S. Information

2013년 1월 정식 운영,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 자동출입국심사(SES) 전용 홈페이지 오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자동출입국이용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동출입국심사 전용 홈페이지(www.ses.go.kr)를 오픈했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첨단IT기술을 기반으로 출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하여 출입국 직원과 대면심사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심사 절차를 마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 6월 13일부터는 미국과도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제를 전면 시행해 미국 방문 시에도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월부터 정식 운영되는 홈페이지에서는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자동출입국심사 업무안내 및 홍보자료 게시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지원한다.

Improved Service Starting January 2013 Exclusive Website for Smart Entry Service(SES) Open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KIS) has created an exclusive website (www.ses.go.kr) for Smart Entry Service (SES). Applicants for the SES-GE program no longer apply through Hi Korea as this website provides direct SES service.

Utilizing the latest technology, the Smart Entry Service (SES) simplified entry process without face-to-face entry evaluation. Beginning June 13, 2012, KIS partnered with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linking the Smart Entry Service with the U.S. Global Entry program. Approved users of the two services now enjoy the same simplified process when entering the U.S. as well. Official online service begins this month, offering service including application submission, announcements,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in Korean and English.

Blue post는 <共Zone> 독자 여러분들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共Zone> 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BLUE POST

2012 WINTER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공존>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입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테마가이드'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내·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입국본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선덕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카자흐스탄에서 온 김갈리나 씨 기사가 인상 깊어 이렇게 엽서를 보냅니다. 타국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제 남편분도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하니, 앞으로는 한국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김재환** 충남 공주시 중학동

'테마사이트'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에 관광안내전시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행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거 같아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과 한류스타 전시관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왠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기사 부탁드립니다. **서진우** 경기도 오산시 원동

이번 <공존>에서 '희망교실스케치'의 가을운동회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어릴 적 가을운동회가 생각났어요. 모두가 열정적으로 운동회에 참가한 것 같아 기사를 읽는 내내 즐거웠어요. 내년에도 활기차고 좋은 기사로 채워진 <공존>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양서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저는 5년 전에 필리핀에서 한국에 왔어요. <공존>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기사도 볼 수 있어 자주 보는 편인데요. 그중에서도 '체험, Korea' 코너를 즐겨 봐요. 특히 이번에 순천 기사를 보고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조금 멀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순천에 꼭 가보고 싶어요. **레철안**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배우는 한국

예로부터 농경 사회였던 한국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짚을 이용해 '짚신'을 만들어 신었다. 짚을 꼬아 만든 짚신은 무공해 신발로 가볍고 편해 남녀노소 누구나 대중적으로 신던 신발이다. 그러나 짚신의 가장 큰 단점은 추위에 약하다는 것.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북부 산간지방의 경우 겨울 철 폭설과 혹한으로 눈발과 빙판길이 생기기 일쑤인데, 짚신만으로 겨울을 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우리 조상은 짚신의 밑바닥에 '설피'를 덧대어 추운 겨울을 이겨냈다고 한다.

'설피'라고도 불리는 '설피'를 신으면 눈발이 아무리 깊어도 빠지지 않으며, 비탈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설피는 짚신처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졌다. 10년쯤 자란 다래 덩불이나 노간주나무 또는 물푸레나무를 이용하는데, 다래 덩불이나 노간주나무의 껍질을 벗겨 다듬은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천천히 힘을 주어가며 타원형의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돌레에 다래 덩불이나 곰가죽 끈을 위아래로 묶어서 고정시키면 설피가 완성된다. 완성된 설피 모양은 마치 배드민턴 채의 모양과도 유사한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설피'를 신으면 눈발에 빠지지 않는다. 설피의 넓은 면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신발보다 작아 눈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설피는 함박눈이 내릴 때보다는 폭설 후 빙판길이나 눈밭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

요즘은 설피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지만,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 인제에서는 아직도 설피가 유명하다. 고산 청정지대인 인제에는 설피마을이 있는데, 설피를 신어야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다. 이곳엔 설피를 직접 제작해 신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올 겨울 자신이 직접 만든 설피를 신고 눈밭을 달려 본다면 특별한 체험이 될 듯하다.

폭설에도 끄떡없다! 눈밭을 달리는 신발 '설피'

